

광양시, 9월 '독서의달' 맞아 도서관별 97종 문화행사 풍성

'독서의 달' 슬로건 '읽기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 도서관별 특색 살린 97종 독서 진흥행사 마련

광양시립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작가 초청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독서 이벤트 등 총 97종의 다채로운 독서 진흥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서의 달은 '독서문화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로 지정된 기간으로, 국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속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광양시는 같은 법과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읽기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을 슬로건으로, 도서관별 특색에 맞춰 명사초청 강연 7회, 공연 5회, 체험 프로그램 31종, 독서 서비스·이벤트 54종이 진행된다.

□ **광양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은 9월 24일 오후 2시에는 대표 인문학 강연 '모두의 서재'가 마련된다. 이번 강연에는 「마흔에 읽는 소편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가 참여해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 수업'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는 ▲가방 한 가득 대출 - 도서관을 가져가세요! ▲책 읽기의 시작 인증 도장 찍기 ▲책 속의 나 한 구절 써 봄 ▲책 사이 뽀뽀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또한 문화공간 '하루'(별관 1층)에서는 시민독서학교 '챗GPT 전자책 출판소' 작품 전시와 명사 추천 도서 전시가 진행된다.

□ **광양중마도서관**
중마도서관은 9월 19일(금) 오후 3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다수 방

송에 출연한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를 초청해 역사 인문 특강을 연다.

9월 27일(토) 오후 4시에는 광양시립국악단의 기획공연 '키·나·숲·풍류'가 무대에 올라 국악의 깊은 울림과 예술감독의 해설을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책 도장 탐험대 ▲책 속 행운 찾기 ▲도서관 속 작은 영화관 ▲기증도서 나눔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와 독서진흥 이벤트가 운영된다.

□ **광양희망도서관**
희망도서관은 9월 20일(토) 오전 11시, 지역 자원봉사 단체 보금자리와 함께 동극 '내가 왕이야'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9월 24일(수) 오후 5시에는 마술쇼 '매직 키즈니버스'가 열려 어린이들이 신비한 오즈의 세계로 안내한다.

특별 이벤트로는 ▲매달이 키링 증정(안녕 매달아) ▲미래기술 손바닥그림 그리기 ▲도서관 속 작은 영화관 독자가 되어 주세요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독후 책놀이 활동이 포함된 '갑자만 작가의 서재' 프로그램도 마련돼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광양용강도서관**
용강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9월 15일(월) 오후 4시에는 '꼬물꼬물 지렁이 과자 화분 만들기', 9월 17일(수) 오전 10시에는 '페이퍼 아트: 라벤더 리스 만들기'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AR 책카드 만들기 ▲스탬프 책갈피 만들기 ▲상주작가 이벤트 '용강 우체국' 등 독서진흥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또한 ▲다독왕 도

전 ▲유퀴즈 언더 올해의 책 ▲꿈을 잡(job)는 책 꾸러미 ▲그림책으로 만나는 소년 정재봉 참여 어린이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독서 서비스가 제공돼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한다.

□ **광양금호도서관**
금호도서관은 시와 예술을 사랑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9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석주 시인을 초청해 '시가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연다. 청중들은 '대추 한 알'로 잘 알려진 장석주 시인과 함께 시문학의 의미와 위치를 살펴보고, 문학과 예술이 삶을 활기차게 하는 선순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9월 18일(목) 오후 4시 30분에는 과자집 만들기 '집 장만이 쉽지 않아', 9월 20일(토) 오전 11시에는 '아빠와 전통놀이 운동회'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도서관 굿즈 증정 ▲물품 나눔 ▲독서의 달 기념음반 재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 **광양광명도서관**
광명도서관은 영어와 독서를 접목한 특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한다.

9월 27일(토) 오전 11시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영어 마술 공연 '인비지블'이 무대에 오른다. 신진옥 마술사(루피)가 동화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영어와 독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Book Bingo ▲블라인드 북 ▲밸런스게임 ▲다독왕 선발 등 시민 참여형 독서 이벤트가 진행된다.

□ **광양꿈빛도서관**

읽기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



꿈빛도서관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9월 27일(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해등 작가가 '꿈을 찾아 떠나는 동화여행'을 주제로 어린이들과 만난다. 9월 17일(수) 오후 5시 30분에는 과학 원리를 마술로 풀은 스토리텔링 공연 '뉴트의 초록 우주를 찾아서'가 열려 어린이와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 창작공간 1층 꿈뜨락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모자이크 컴백칩 만들기 ▲아이스크림 버블바 만들기 ▲글라스아트 키링 만들기 ▲압화액자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김효은 작가의 아트프린트 전시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도 예정돼 있다.

김현숙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2025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민들께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며,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9월은 독서의 달", 순천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만나요

순천시립도서관 8개관에서 43개 이벤트,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풍성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 중이다.

올해 독서의 달 프로그램은 순천시립도서관 8개관에서 총 43개의 이벤트, 전시, 강연, 프로그램,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독서의 달 스티커북 이벤트'는 도서관에서 준비한 미션을 수행하고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독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삼산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자 체험 포토존 등을 마련한 '별난 도서관, 특별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어울림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어울림 찾습니다' 캐릭터 응모 등 이용자와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다. 또

한 신대도서관은 만화와 웹툰을 즐기는 청소년과 시민을 위해 도서관 한쪽에 '만화책방' 콘셉트 전시 서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에는 '원시티원북(One City One Book)' 선정 도서의 저자인 조승리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선포식과 함께 한 북토크에 이어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독서 경험과 공감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독서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서의 달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suncheon.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순천시 도서관운영과(061-749-698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장흥군은 천관문화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대상 창작 프로그램 '꼬마 그림책 작가 교실'을 운영한다.

현재 관산남초등학교 학생 13명이 참여해 9월 29일까지 매주 진행되며, 지역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네 전설 그림책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김해등 상주작가가 직접 찾아가 스토리 구상-드로잉-편집-제작을 지도하는 방형형 문학·

장흥군, '꼬마 그림책 작가 교실' 운영한다

우리 동네 전설 그림책으로, 완성작은 천관문화관 전시 추진

예술 융합 수업이다.

완성 원고는 편집 과정을 거쳐 10월에 책으로 출간한다.

11월에는 출간 기념회를 열어 학생 작가들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완성된 그림책은 장흥군 유일의 문학관인 천관문화관 내에 '내일의 노벨문학상 어린이 책방'을 꾸미고 전시한다.

장흥군은 관산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내 각급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

며,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천관문화관 김해등 상주작가는 "아이들이 자라온 동네의 전설을 자신만의 문장과 그림으로 빛내는 경험이 문학적 자존감과 지역 애착을 키울 것"이라며, "완성작 전시와 출간 기념회를 통해 장흥군 꼬마 작가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